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지지비호하고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가로막기 위한 미국선교사들의 책동

김 병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는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감행하여왔으며 일제의 조선강점을 비호한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입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종교인들을 매수하여 제놈들의 앞잡이로 리용하여왔습니다.》(《김일성전집》 제5권 377페이지)

미일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력사적으로 공모결탁하여왔다.

특히 조선에 기여든 미국선교사들은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 인민의 반일계급의식을 거세하고 반일의병투쟁과 전민족적인 3.1인민봉기를 말살하기 위하여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미국선교사들은 무엇보다먼저 일제의 《통감통치》시기 《을사5조약》날조에 의한 일제의 조선강점통치를 합법화하고 그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반대하여나섰다.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곧 조선에서 식민지 《통감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다.

일제는 1905년 12월 21일에 《천황》의 칙령 제267호로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라는 것을 공포하고 1906년 2월에는 한성에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개항장과 전국의 주요도시들에는 13개의 리사청을, 기타 11개 도시들에는 리사청 지청을 설치함으로써 전국에 정연한 식민지통치기구를 조작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처음부터 《을사5조약》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은 고종황제는 미국의 힘을 빌어 국권을 되찾을 목적으로 자기는 《을사5조약》을 승인한적이 없으며 따라서 불법무효하다는 내용의 밀서를 친절한 관계에 있던 미국 감리교선교사 헐버트에게 주어 미국에 파견하였다.

고종황제가 선교사를 통하여 미국정부에 밀서를 보낸 리면에는 이전시기 미국이 언제나 정의를 입버릇처럼 외웠고 조선에 와있는 선교사들이 황실과 매우 친절한 관계를 가지고있던 당시 조건에서 국제적으로 일제의 강도적행위가 규탄되고 조선내에서도 미국선교사들이 자기 정부와 같은 립장에서 조선봉건왕조의 편에 설것이라는 타산이 깔려있었다.

그러나 고종황제의 밀서는 미국무장관에 의하여 오히려 일본측에 통보되었으며 이 일로 하여 이또 히로부미는 고종의 밀서를 본국에 날라간 미국선교사들에게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선교사들은 1907년 5월 7일부 일본 《요미우리신봉》에 저들의 립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변호문을 발표하여 일제의 《통감통치》를 공식적으로 지지해나섰다.

미국선교사들은 변호문에서 《헐버트가 미국에 간것은 전혀 개인의 자격이었으며 우리는 그가 왜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 일본국민은 미국선교사들이 그 적이 아님을 알고 또 ...충실한 벗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그리스도교화하여 그 안녕과 리익을 증진할바름임을 알아주시요. 소생들의 생각에는 이또후작의 통치는 가장 큰 찬양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생

각하며…소생들은 실로 통감통치의 가장 진정한 지지자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였다.

조선에 침투한 초기부터 고종에게 살이라도 베어줄 것처럼 수선을 떨면서 친절한 관계를 표방하여오던 미국선교사들은 이렇게 본심을 드러내놓았으며 고종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황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가닥의 동정도 베풀지 않았을뿐아니라 일제를 도와나섰다.

미국선교사들은 특히 조선사람들에게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노예적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주입시키는 한편 반일투쟁에 떨쳐나선 조선인민의 투쟁을 모독증상하고 약화시키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미국선교사들은 일제가 우리 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우리 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해도 그에 항거할것이 아니라 순종할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선교사 존스와 같은자는 《조선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것은 잘 정의된 법의식(일제의 통치악법에 대한 준법의식-인용자)과 합법적으로 확립된 권력(일제의 통치체제-인용자)에 대한 존경》이라고 하면서 일제의 조선침략을 조선인민이 《합법적인것》으로 인정할것을 요구하는 열빠진 소리를 켜쳤는가 하면 고종황제의 밀서를 가지고갔던 험버트와 같은자는 조선이 《순수한 그리스도교국이 됨으로써 압제에…참고 순종하며 생활의 청결로 몽칠것》과 《모든 압제의 세력은 꼭 참는 고요한 힘에 의해서 정복된다.》라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칼을 차고 집안에 뛰여든 강도에게 반항할것이 아니라 도덕으로 대하고 강도의 요구에 순종하며 그대로 들어줄 때 결국 강도를 이기는것으로 된다는 무저항을 설교하는 그리스도교적인 녀두리로서 우리 인민을 일제의 노예로 만들려는 반동적인 악설이었다.

교회를 장악하고있던 미국선교사들은 교회의 순결성, 교회의 비정치화를 떠들면서 교인들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아나섰다.

당시 일부 독립운동자들은 일제가 미국선교사들이 주관하는 그리스도교교회들에 대하여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있는것을 리용하여 교회계통에 적을 두고 반일독립운동을 추진하고있었다.

이를 간파한 미국선교사들은 《교회는 하느님의 교회요, 나라일(반일독립운동-인용자)을 보는데가 아니므로 레배당이나 교회당은 교회일을 위하여 쓸 집이지 나라일을 의논하는 집은 아니다. 그 집에 나라일을 공론하러 모이면 안될것ियो. 또한 누구든지 교인으로서 다른데서도 공론하지 못할 나라일을 교회에서는 더욱 못할것이다.》라고 떠벌이면서 교인들이 반일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였다.

미국선교사들은 반일의병투쟁에 대해서도 적대적으로 대하였다.

이자들은 우리 인민이 일제를 반대하는 의병투쟁을 벌리자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비행》이라고 하면서 그를 적대시하고 친미적인 악질교직자들을 내몰아 의병운동을 해산시키기 위한 《선유위원》으로 돌아치게 하였으며 나중에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악랄하게 모독증상하여나섰다. 선교사 게일리란자가 《위조애국의 미친 바람이 휩쓸어 자결(일제를 저주하여 목숨을 끊는 반항-인용자), 허황한 맹세(반일애국을 결의하는 맹세-인용자), 게릴라의거(반일의병투쟁-인용자), 랭혹무정의 저항(목숨걸고 반항-인용자)》이 온 나라에 차고넘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의식과 투쟁을 가짜애국이라고 악의에 차서 비난한 사실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일제의 《통감통치》를 적극 찬양고무하고 우리 인민의 반일기세를 거세말살하려 한 선교사들의 이러한 책동에 대하여 당시 교회감독으로서 일본에 주재하고있던 선교사 해리스는 1907년 일본 《고꾸밍신봉》 사장 도꾸도미 소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조선에 있는 미국선교사들이 다만 통감정치를 반대하지 않을뿐더러 신뢰와 교의로써 조선의 그리스도교도들로 하여금 현 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도록 노력하고...있음을 당신에게 확인하는바이다.》라고 매우 《자랑》스럽게 지껄여대기까지 하였다.

미국선교사들은 다음으로 무단통치시기에도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지지비호하였으며 특히 조선인민의 3.1인민봉기를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날뛰었다.

1910년에 들어와 《총독정치》에로 이행하면서 헌병경찰제도에 기초한 무단통치체제를 수립한 일제는 그에 의거하여 극악한 중세기적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초대조선《총독》으로 들어앉은 악명높은 데라우찌 마사다케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뇌까렸다. 데라우찌의 이 폭언은 무단통치시기는 물론 조선에 대한 강점통치의 전기간에 걸쳐 일제침략자들이 일관하게 적용한 하나의 《시정방침》으로 되었다.

이 시기 미국선교사들은 일제의 강도적인 무단통치를 합법적인것으로 찬양하고 우리 인민들 특히 교인들로 하여금 일제를 반대하는 반일투쟁에 나서지 못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미국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은 조선인의 벗이면서 동시에 일본인의 벗》으로서 《령토에서나 국민의식에서나 조선의 일본화에 대해서...진실한 선의로 받아들인다.》라고 떠벌이면서 일제에 의한 조선의 합병과 무단통치를 지지해나섰으며 조선사람들로 하여금 일제의 총칼통치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그것은 미국북장로교회 선교부 해외총무 브라운이 《선교사들이 항상 조선인의 정치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갖은 힘을 다 동원해왔으며...세상이 알다싶이 선교사들의 이러한 견제가 아니었던들 병합직후에 교회가 주동이 된 〈혁명〉이 폭발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장담한것과 《선교사와 일본과의 만족할만 한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선교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정치에 복종하고 이를 존경하라고 가르쳤다.》라고 저들의 활동을 자랑스럽게 떠벌인데서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미일제국주의의 이러한 탄압과 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민은 일제의 야수적폭압정치를 반대하여 각종 형태의 합법적, 비합법적투쟁을 끊임없이 벌리었다.

일제에 대한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분노는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의 불길로 터져올랐다.

조선인민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해방되고 민족자주의식이 강해지는것을 바라지 않은 미국선교사들은 3.1인민봉기가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높아가고있던 반일기운과 움직임을 미리 내탐하고 일제경찰에 알려줌으로써 일제로 하여금 애국적인 반일투쟁을 사전에 교살하게 하였다. 선교사 스미스의 고백에 의하면 미국선교사들은 《거사 얼마전 공기가 수상하여 이를 총독부관헌에게 알려 조심, 대피하라고 경고》함으로써 일제의 앞잡이역할까지 수행하였다.

저들의 밀고에도 불구하고 3.1인민봉기가 진척되게 되자 미국선교사들은 조선인목사들을 비롯한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을 매수공갈하여 투쟁이 전민족적인 봉기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종래의 행동계획을 포기하고 일제에게 투항하도록 하는 반동적인 책동을 감행하였다.

당시 한성의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원으로 있던 선교사 벡커는 3.1인민봉기조직에 관여하고있던 그리스도교청년회의 간사 박희도에게 독립선언서발표는 야외에서 하는것보다 실내가 더 좋을것이라고 끈질기게 설교하였다.

결국 벡커의 책동에 의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중 29명은 3월 1일 오후 2시 한성에서 선언서를 발표하고 투쟁으로 돌입하기로 한 수십만군중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비겁하게도 명월관의 지점인 태화관에 모여 황급히 선언서를 랑독한 다음 식사연설과 만세 3창으로 굶뻐버리었다. 그리고는 《총독부》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경무총감과 종로경찰서에 자기들의 위치까지 알리는 배신적인 행동까지 하였다. 선교사들의 사촉을 받은 그리스도교목사들인 길선주, 유여대, 정춘수, 김병조와 같은자들은 《사경회》를 구실로 이미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도망가 한성에 나타나지조차 않았다.

한편 미국선교사들의 부추김을 받은 평양 그리스도교서원 총무 안세환은 도교에 가서 일본 내각총리와 군국주의우두머리들에게 조선독립을 《요청》할 목적으로 3월 3일 경시총감을 찾아갔다가 체포되고말았으며 33인중에 속하였던 길선주, 유여대, 정춘수는 후파가 두려워 일제경찰을 찾아가 스스로 자진체포되기까지 하였다.

특히 미국선교사들은 3.1인민봉기가 더욱 고조되고 일제의 야수적탄압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 인민의 피가 흐를 때 이를 악랄하게 모독중상하여나서는 가증스러운 행위까지 감행하였다.

이자들은 우리 인민의 3.1운동에 대하여 《이 독립운동의 방법이나 그 정신은 완전히 조선적이지 서양적인데가 조금도 없다.》, 《선교사들이라면 무기 한점없이 세계열강의 하나인 일본에 맞서 싸울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리 없다.》, 《3.1운동당시 어떤 곳에서는 독립선언서가 교회당에서 랑독되었는데 이것은 불행한 일이였으며...교회건물에서 독립시위를 한것은 잘못이었다.》라고 하면서 애국적인 교인들의 시위참가를 비난하여나섰다. 심지어 스미스 같은자는 《...소동이 일어났을 때 조선에서 비참한 사태가 빚어졌다. 그 사실은 세계에 알려졌지만 조선사람측에도 잘못이 있다는데 대하여서는 잘 알려져있지 않고 있다. 생각컨대 그들의 독립선언은 커다란 잘못이었다. 그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역적으로 되였고 스스로 흑형을 가져오게 하였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의 무분별함을 비웃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선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지만 누구 하나도 현재의 조선사람들에게 독립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 않고있다. ... 지금 조선이 독립을 부르짖는것은 미국의 소년이 선거권을 요구하고있는것과 같다. ... 때문에 그들 조선사람들이 그러한 당돌한 소동을 일으키지 말고 필요한 개혁을 요구한다면 작년과 같은 비참한 경험을 체험함이 없이 오히려 더욱 발전하고있었을것이다.》라고 하면서 3.1인민봉기를 중상하고 우리 인민의 반일독립투쟁을 모독하였다.

미국선교사들은 다음으로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통치》시기에도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거세말살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3.1인민봉기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학살만행으로 온 나라가 피바다에 잠겨있던 1919년 9월 감리교조선전례회를 주재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나라에 기여든 선교사 롬바스는 새 《총독》으로 임명되어 조선으로 기여들고있던 사이토와 렬차안에서 만나 조선에서 미국선교사들이 일제식민지통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것을 모의하였다.

1921년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로회 회장 모페트를 비롯한 여러 교파들의 교회우두머리들이 《총독》 사이또와 만나 《문화통치》에 맞게 그리스도교를 통하여 그를 뒤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921년 회담이후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의식을 말살하려는 미국선교사들의 책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자들은 3.1인민봉기후 애국적인민들이 갇혀있던 감옥에까지 찾아다니면서 허황한 교리를 설교하였으며 성서를 비롯한 출판물들을 뿌려가면서 그들의 반일의식과 투쟁정신을 마비시키고 애국적지조를 꺾기 위하여 책동하였다.

력사적사실들은 우리 나라에 기여든 미국선교사들이 우리 인민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흐리게 하고 혁명적진출을 가로막아나서는 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미일침략자들이 외세의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반대하는데서 력사적으로 공모결탁하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우리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현시기 종교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주의사상진지를 허물고 일심단결을 파괴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미일반동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